

가계빚 1637조 사상 최대... 빚내 집 · 주식 투자 열풍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637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려는 '패니 바임' 흐름에 '빚투(빚 내 주식투자)' 열풍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0년 2/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25조9000억원(1.6%) 늘어난 1637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한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에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액수로 가계가 진 빚의 총합을 보여준다.

가계빚은 지난 1분기 11조1000억원(0.7%)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나자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지난 1년간 늘어난 가계빚 규모는 80조

2분기 가계신용 잔액 1637조... 25.9조 급증

'빚투'에 증권사 신용공여 사상 최대 증가

5000억원(5.2%)에 달했다. 지난 2018년 4분기(86조1000억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9000억원(1.6%) 증가했다.

지난 1분기(17조3000억원), 지난해 2분기(16조3000억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모두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 대비 14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지난 1분기(1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집값 상승이 늘었으나 정부의 정책 모기 지원 취급이 감소한 영향 등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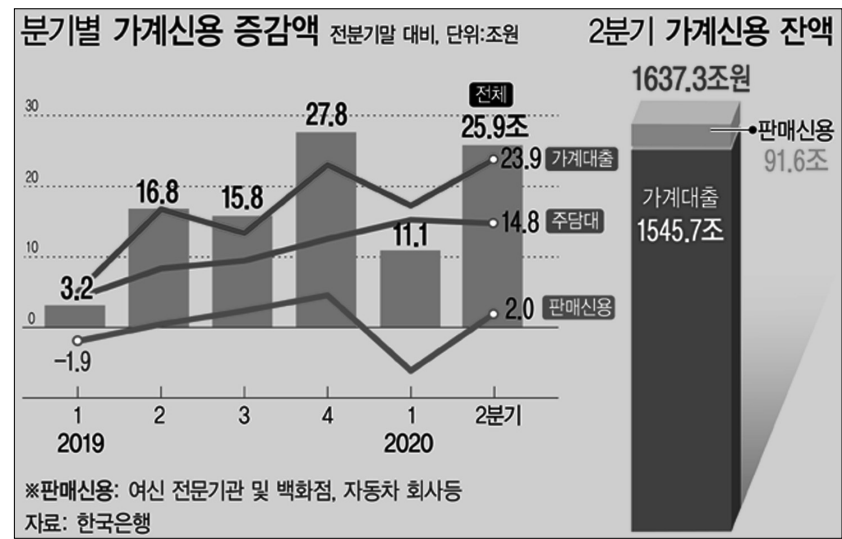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은 9조1000억원 급증했다.

1분기 증가규모(1조9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4분기(10조5000억원) 수준에 거의 맞먹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증권사장의 신용공여 규모 증가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빚 내 주식투자에 나선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다.

증권사가 증권담보대출, 신용거래용자 등으로 투자자에 빌려준 신용공여액은 2분기 7조9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급등으로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가세한 점도 대출 급증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가 막히자 대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 것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빚을 낸 가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4조4000억원 늘며 전분기(12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2분기(13조3000억원)

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10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4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늘어 눈에 띈 급증세를 보였다.

이중 증권사가 포함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10조3000억원으로 2015년 2분기(25조4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판매신용 잔액은 91조6000억원으로 2조원(2.2%)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1분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6조1000억원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판매신용에는 결제 전 카드사 용 금액 등이 포함된다.

2분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카드 사용 등이 다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금순환 통계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규모는 98.5%로 지난해 4분기(97.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분기 191.7%로 지난해 4분기(190.6%)보다 올라갔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가계빚이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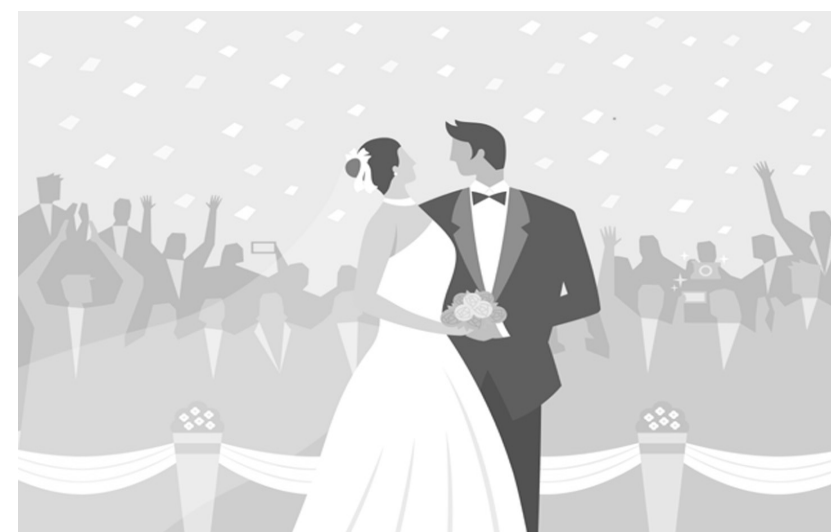
신용우 기자



코스피, 2360선 회복 마감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2.3p(0.52%) 상승한 2360.54, 코스닥 지수는 18.52p(2.31%) 오른 818.74에 장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5원 내린 1181.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3개월 위약금면제' 요청에...예식업중앙회 "6개월하자"

예식업중앙회, "내년 2월까지 6개월 면제 검토 협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식업중앙회가 내년 2월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식업중앙회 정은규 이사장은 19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구두로 위약금을 3개월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전달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3개월 위약금 면제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추세가 단 3개월에 사그라들지 확실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올해 3~4월 예식을 치를 예정이었다가 3개월을 연기한 예

비 신혼부부의 경우 7~8월에 예식 일정을 잡았고, 코로나가 대거 재확산하면서 현재 곤혹을 치르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이미 올해 3~4월 예식을 대거 미룬 예비부부들이 지금 매우 난처한 지경이라 마음이 아프다"며 "또 이같은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공정위 요청대로 3개월이면 11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장이 되는데, 일단은 12월까지 위약금 면제를 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더 나아가 내년 2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보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것은 내일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예식업중앙회에 3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객을 50명 이상 부를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기동취재본부

유통업계 마스크 확대 공급...KF94 다시 찾는다

코로나 2차 대유행에 KF94 수요 ↑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유통업체가 서둘러 마스크를 확대 공급하고 있다.

19일까지 엿새 간 새로 추가된 코로나 확진 환자는 1288명이다.

홈플러스는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20일부터 각종 방역 마스크를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KF(Korea Filter)94 마스크를 3만장 준비해 장당 990원에 판다.

1인당 구매 한정 수량은 기존 10매에서 2매 올린 20매로 상향 조정했다.

또 비말 차단 마스크도 52만장 추가 확보했다.

온라인몰에서 평판형 제품을 5매에 2500원,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입체형 제품을 장당 600원에 판다.

구매 한정 수량은 역시 20매다.

17~18일 홈플러스 마스크 매

출은 전월 동기 대비 42% 늘었다. 롯데마트도 KF마스크 30만 장, 비말 차단용 마스크 120만장을 확보한 상태다.

20~26일 국내 제품 9종을 옐포인트 회원이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장당 388원에 살 수 있다.

e커머스 업체 티몬은 전날 KF94·KF80 마스크를 특가 판매했다. 1장당 538원에 10분간 팔았고, 주문량 약 6900건, 판매량 35만장이었다.

입자 차단율이 높은 KF94는 1분 만에 매진됐다.

19일엔 3중 필터 일회용 마스크를 특가 판매했다. 티몬에 따르면 지난 14~17일 마스크 매출은 전주 대비 364% 증가했다. 이 기간 손 세정제 매출도 96% 올랐다.

이런 더위가 찾아온 6월 이후 KF 수치가 높은 마스크 판매량은 꾸준히 감소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숨 쉬기가 편하고 가벼운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텐탈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

가 늘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확진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시 KF 마스크 판매량이 증가했다.

편의점 지에스(GS)25에서는 지난 15~17일 마스크 매출이 전주 대비 26.9% 증가했다.

역시 KF 마스크 매출 증가율이 일반 마스크 매출 증가율보다 컸다.

KF 마스크 매출은 35.9% 올라갔고, 비말 차단 마스크 등을 포함한 일반 마스크 매출은 18.4% 늘었다.

씨유(CU)도 비슷했다. 15~18일 전체 마스크 매출은 전주 대비 30.8% 늘었고, KF 마스크 매출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39.52%였다.

CU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커져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이번 주부터 크게 늘고 있다. 아직 물량 수급이나 가격 변동 등 특이 사항은 없지만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

오유나 기자

"늦캉스 기대했는데"...썩쓸한 호텔업계

숙박쿠폰 등으로 '붐업'된 분위기에 찬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줄고,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만큼 여름휴가는 국내 호텔업계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장마도 끝나면서 '늦캉스' 트렌드가 선호되는 외중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업계가 썩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19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으나 주요 호텔의 예약률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사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고, 호텔이 아니면 딱히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서다.

한 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1월 설 연휴 이후 계속 이어져 온 것이 다보니 1~2% 가량 취소가 됐긴 했지만 예약률에 큰 차이가 없다"며 "해외도 못 나가고 주로

집에만 있다보니, 휴가철 같기로 그나마 호텔이 안전한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휴가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면서 불과 지난주까지만해도 호텔업계는 '늦캉스' 열풍을 기대했다.

서울신라호텔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국내 고객 예약 수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다.

정부가 9~10월 투숙 가능한 숙박 쿠폰을 100만장 뿌리면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 모두 눈치게임에 돌입한 상태다.

아직까지 일단 취소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 재

확산이 회복세에 찬 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신라스테이 전안은 지난 17일 임시휴업을 했고, 강원도 강릉의 썬크루즈 호텔에서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추가 감염자는 없었지만 호캉스를 떠나려는 이들을 주춤하게 한 사건이다.

투숙객도 투숙객이지만 연회장도 원활히 돌아가기가 어렵게 됐다는 점도 문제다. 오는 30일까지 결혼식·회갑연 등 사적모임이 50명 이하로 제한되다보니, 호텔들은 미리 예약해 놓은 소비자들을 응대하느라 바쁜 상황이다.

또 다른 호텔 관계자는 "취소가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보니 눈에 띌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객실점유율 하락은 예상하고 있다"며 "연회장도 결혼식 연기 관련해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